올해 특수학급 54개 신·증설

전북교육청,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습권·학교 선택권 보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올해도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54개를 신·증설한다고 5일 밝혔다.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6학급, 특수학교 13학급 등이다. 이는 2024년 61학급, 지난해 50학급에 이은 3년 연속 과감한 학급 신·증설로 주목받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특수학급 설치 조례 제정,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수학교 설립도 계속된다. 장수군 계북면에 들어서는 동부산악권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2026년 3월 개교한다.

덕유샘학교는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 전공과 1학급 등 총 7학급으로 시작하며 진로직업중심 특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 '모두가 존중받는 특수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겪어왔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문화예술체육 중점 특수학교와 전주 직업중점형 특수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강화는 그동안 전북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왔고, 앞으로도 학생을 중심에 둔 전북특수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업 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대학교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를 통해 라오스에서 진행한 해외교육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ODA 연계 글로벌 교육 실천… 전주대, 라오스 해외교육봉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3년 연속 선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해외교육봉사'를 통해 라오스에서 진행한 해외교육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외교육봉사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국제적 소양을 갖춘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개발도상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대학교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해당 사업 운영 대학으로 선정되며, 우수한 글로벌 교육 역량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전주대학교 해외교육봉사단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수파누봉국립대학교와 파사띠파타이 중등학교에서 약 한 달간 교육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봉사단은 한국어문화팀, ICT과학팀, 예체능팀으로 구성돼 현지 교육 환경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활동 중심·참여형 수업을 운영했다.

특히 △우블렉실험 △트러스구조실험 △DNA 키링 만들기 △치어리딩&숏폼 배우기 △엑셀 및 컴퓨터교육 △한국어 육하원칙 △한국어 문장 종류 수업 등 한국어·문화·예체능·과학·IT·미래기술을 융합한 프로그램은 현지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한국 교육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수파누봉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통역 및 운영 요원으로 참여해 중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협력 모델이 도입됐다. 이는 교육 봉사의 현지 적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주대학교가 본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주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 관계자는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했다"며 "이번 교육봉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양국 간 교육 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황인수 해외봉사단장(호텔경영학과 교수)은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라오스 해외교육봉사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해외교육봉사 활동이 예비 교원인 학생들이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배우고, 글로벌 교육 현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교육봉사에 참여한 예비 교원들 또한 "다양한 문화와 교육 환경 속에서 전공 역량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주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교원 양성 역량 '재입증'

한국교육개발원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A등급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사범대학이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하며 교원양성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맞춤형 지도체계, 현장 연계형 교육실습, 안정적인 교원 확보 및 교육 품질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러한 교원 양성 역량 강화는 최근 입시에서도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대학교는 2026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 4.95대 1을 기록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지원자 수는 41.2% 증가했다. 특히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 13대 1, 영어교육과 12대 1, 수학교육과와 가정교육과 각각 10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주대학교는 예비교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심화 특강, 현직 교사·전문가 초청 특강,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교육실습 지원체계 등 현장 중심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사제동행 특강', '수업 실연 컨설팅', '예비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교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7급 공무원 육성 PSAT 파이널 특강 운영

국립군산대학교 미래인재반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7급 공무원 육성 PSAT 파이널 특강'을 운영했다.

이번 특강은 7급 공무원 시험의 핵심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비를 위해, 언어논리·자료 해석·상황판단 과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전 문제 풀이를 병행한 집중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6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선발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실전 감각과 시험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는 미래인재반 참여 학생과 본교 재학생 중 12명이 선발돼 전 과정을 수료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메탄가스를 메탄올로… 단백질 원리 규명

오랜 과학계 난제… 전북대 이승재 교수팀, 극저온 전자현미경 활용해 확인

이승재 교수

황윤하 대학원생

박소연 대학원생

류범한 박사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효과가 30배 이상 강한 메탄가스는 자연 속에서 유용한 자원인 메탄올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반응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지는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아 과학계의 난제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자연의 마법'이 전북대학교 이승재 교수 연구팀 (황윤하, 박소연 대학원생)의 연구로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다. 이 교수팀은 극저온 전자현미경(cryo-EM)을 활용해 자연계에서 메탄가스를 메탄올로 바꾸는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원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트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연료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자연계에서는 일부 미생물이 가진 '수용성 메탄모노옥시게나제(sMMO)'라는 단백질이 메탄을 메탄올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 단백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며 반응을 일으키는지는 지금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의 X-선 결정학 연구 방식은 단백질을 고정된 결정 상태로 만들어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단백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승재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극저온 전자현미경 기법을 도입했다. 이 방법은 단백질을 영하 180도 이하로 급속 냉동해 자연 상태에 가까운 구조를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7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서로 결합과 해리를 반복하며 메탄을 메탄올로 바꾸는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만 알려졌던 메탄 산화 반응이 실제로 어떤 구조 변화와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전북대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제1저자인 황윤하 대학원생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진(류범한 박사)과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 의과대학 연구진(Edwin Pozharski 교수)과 협력해 고해상도 구조 분석을 수행했다. 지역 거점국립대학도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주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승재 교수는 "이번 성과는 메탄을 활용한 친환경 연료 생산과 인공촉매 개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북대학교 글로컬 TOP100 사업과 한국연구재단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재훈 기자

신설 학교 재정집행 점검 체계화

전북교육청, 올해 학교 신설비 재정집행 점검단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사업의 재정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개교 추진을 위해 '학교 신설비 재정집행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12개교를 신설중에 있으며, 올해 4개교를 비롯해 2027년 4개교, 2028년 2개교, 2029년 2개교가 개교 예정이다.

점검단은 본청 학교 신설 관련 업무 담당자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점검단은 학교 신설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높이고자 구성·운영된다.

매월 사업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재정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점검단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시 보완,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주 행정과장은 "학교 신설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신설 학교가 계획대로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중학교 가는 길' 진로연계교육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교사용·학생용 자료 개발

중학교 진학 앞둔 초등 6학년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기 진로연계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생 대상 진로연계교육 자료인 '나:로(路) 새:로(路) 중학교 가는 길'을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성찰하며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 제작된 이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집 형태뿐만 아니라 웹진 형태로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자료가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와 진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교사에게는 진로연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나:로(路) 새:로(路) 중학교 가는 길은 초등학교 6년의 배움을 돌아보고 새로운 학교급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자료"라며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진로연계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나:로(路) 새:로(路) 중학교 가는 길' 책 표지.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298명을 발표했다.

총 326명(일반 295명, 장애 31명)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 454명(일반 451명, 장애 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 298명(일반 295명, 장애 3명)을 선발했다.

개인별 합격여부와 성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임용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평가인 제1차 시험과, 수업 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포함한 제2차 시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체육·음악·미술 예체능 교과는 실기평가를 추가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합격자 결정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중 1·2차 성적과 가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신규 임용 예정자들은 앞으로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집합 및 원격 연수를 병행한 직무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연수 일정과 수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우석독서문화학교 활동 우수학생 시상

우석대학교가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도서관은 5일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우석독서문화학교 활동 우수학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각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총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프로그램 참여 실적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선정됐다.

1등은 665마일리지를 기록한 박시연(약학과 3학년) 학생이 차지했으며, 이지정(한약학과 4학년)과 조예은(약학과 3학년) 학생이 공동 2등에 올랐다. 권태영(특수교육과 4학년) 학생 등 3명이 3등에 선정됐고, 천세영(체육학과 4학년) 학생 등 5명이 4등을 수상했다. /오상근 기자